

## 알고나 먹읍시다 / 보약

김 사 연 ·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 3. 정력제

**어**떤 사람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다. 온종일 산 속을 헤매다 보니 배가 고파 빨간 열매를 따 먹었는데 딸기처럼 생긴 것이 맞은 시고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 길을 찾아 하산한 그는 급한 김에 방안에 놓인 향아리 요강에 소변을 보고 말았다. 순간, 소변 줄기가 어찌나 강했던지 향아리 요강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 산딸기를 복분자(覆盆子)라 불렀다고 한다.

한약 중엔 정력제로 상징되는 5자(五子)가 있다. 자자가 붙은 열매로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사상자(蛇床子), 토사자, 복분자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양기가 떨어지는 약제도 있다. 산사(山寺)에서 승려들이 고사리나 버섯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음지에서 자라 음기가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먹을수록 양기가 감소되어서이다.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부하들을 각처로 보

냈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갈구하는 보물은 정력제임이 틀림없다. 정력제는 체질에 맞을 땐 그 효력을 볼 수 있지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 해서, 정력제는 체질을 가려 복용해야 한다.

뱀이나 지렁이는 환자의 체질이 마르고 건조하며 화기가 많은 이에겐 좋지만 똥똥하고 냉습한 체질엔 맞지 않는다. 뱀이나 지렁이가 냉기와 습기가 많은 땅 속에서 자란 동물이기 때문이다.

보혈약인 숙지황이 들어 있는 한약을 복용할 땐 무나 숙주나물을 먹으면 안된다. 숙지황 발에 무를 심으면 무가 말라죽을 정도로 상극관계이다. 한약을 먹을 때 녹두(숙주나물)를 먹지말라는 이유는 해독작용이 강해 한약의 효과까지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줄기는 기(氣)를 밑으로 내리고 뿌리는 기를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한다. 무는 뿌리식물이므로 기를 위로 올리며 이 때문에 무를 먹으면 트림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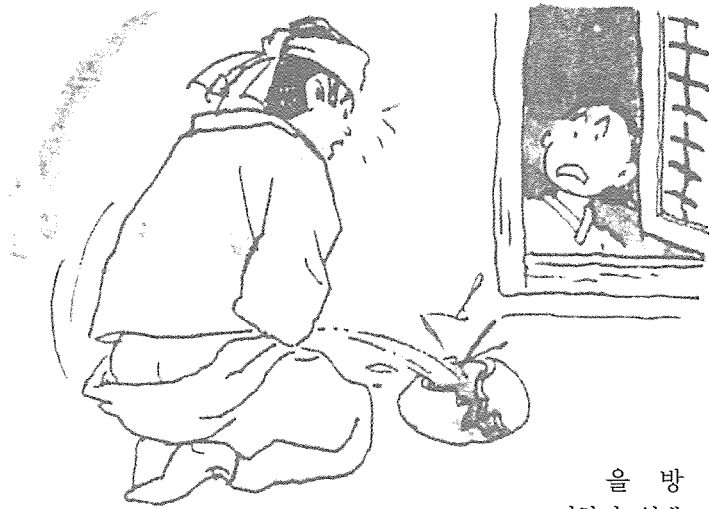
숫사슴 뽕인 녹용의 본 줄

기는 생후 2년 만에 들고 첫 번째 가지는 3년만에, 세 번째 가지는 4년, 네 번째 가지는 5년이 지나야 솟아난다. 녹용은 숫사슴의 뽕이 퇴각한 후 새로 돋기 시작하여 80 ~ 90일 이전에 절단한 것을 말한다. 90일이 지나면 뽕이 굳어지며 약의 효능이 사라지는데 이것을 녹각이라고 부른다.

보양약인 녹용은 대열(大熱)약이므로 열이 많은 사람이 복용하면 한겨울에도 상반신을 드러내놓고 뛰어 다니다가 숨지는 경우가 있다. 녹용을 복용하는 도중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올 땐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고열과 고혈압 환자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된다.

녹용은 추운지방에서 자란 사슴일수록 효능이 뛰어나다. 눈과 얼음 위에서 견딜 수 있는 사슴의 피라면 얼마나 뜨겁겠는가. 반대로 열대지방에서 자란 식물은 더위를 견딜만한 차가운 기운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인체의 열을 끄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녹용은 열과 기를 위로 올



을 방  
지하기 위해  
넣었다. 그 원리

는 산소 호흡시 산소 안에 탄  
산가스를 혼합시켜 심장마비  
를 예방하는 경우와 같다. 어  
항 속에 천적인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 많은 물고기들로  
하여금 운동을 시켜 싱싱하  
게 하는 것과는 같은 이치이  
다.

사슴은 바스락 소리만 들  
어도 도망가는 운동성 동물  
이다. 그런고로 움직이기 싫  
어하는 아이들에게 써야지  
잠시도 안절부절 못하는 아  
이에게 사용하면 코피를 흘  
리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요즘은 암사슴에 칼슘을  
주사하여 뼈를 소생시킨 실  
험이 성공했다고 한다. 만일  
암사슴의 뼈를 여자들이 먹  
는다면 음핵이 커질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녹용은 털을 말끔히 태워  
제거해야 한다. 인삼꼭지가  
인삼뿌리와 반대 작용인 구  
토를 일으키듯 녹용 털은 피  
를 말리는 역작용을 하기 때

리는 약이므로  
어린이에게 너무 많이 먹이  
면 열이 머리까지 올라가 저  
능아가 된다. 어린이에겐 양  
(陽)이 많아 어떤 물체이든  
위로 기어올라가려 한다. 반  
면에 노인인 음(陰)이 많아  
머리와 땅의 간격을 좁히려  
고 허리를 굽히게 되는 것이  
다.

나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돈수(1돈 =  
3.75g)를 초과하면 안된다.  
상초(가슴)로 열을 올리는  
약이므로 폐결핵이나 폐렴  
등 기관지염 환자가 복용해  
서도 안되며 하초(배꼽 아래)  
가 허한 환자가 계속 복용하  
면 오히려 정력이 감퇴할 수  
도 있다.

녹용 대보탕 처방 중 석곡  
(石斛)이란 한약재가 있다.  
석곡은 진액을 만들고 폐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자음  
윤폐 작용이 있는 약으로 열  
이 많은 녹용 대보탕의 충격

문이다. 녹용은 근육과 골격  
을 튼튼하게 해 어린이의 생  
장발육을 촉진시키고, 성호  
르몬을 만들며, 심장을 튼튼  
하게 하고, 신경쇠약과 병후  
회복 작용을 한다. 자궁을  
수축시키므로 몸이 찬 여자  
의 불감증과 자궁출혈을 치  
료하기도 한다.

요즘은 동물 보호 차원에  
서 서각(물소뿔)을 약으로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서각이 코피를 치료하  
며 정력제로 효험이 있는 까  
닭은 밤에 달이 간직하고 있  
는 정기, 즉 월정(月精)을 빨  
아들였기 때문이며 그런 이  
유로 그믐달에 비취보면 후  
광같은 것이 드리워진다고  
한다.

이를 응용해서 만든 월정  
수(月精水)가 있다. 경주 옥  
돌에 흙을 판 후 달빛 아래에  
두면 밤새 물이 고이는데 화  
기가 많은 성격을 치료해 신  
선을 만든다고 한다.

정력제 중에 독계산(禿鷄  
散)이란 처방이 있다. 빨간  
고추잡자리, 참새 알과 한약  
재를 섞어 만든 약이다. 독  
계산을 먹기만 하면 때와 장  
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할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었  
던 할머니는 어느날 그 묘약  
을 마당에 버렸다. 헌데 그  
것을 수탉이 주워먹었다. 수  
탉은 암탉 위로 올라타 설새  
없이 머리를 쪼아 암탉을 대  
머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해  
서 독계산이라 불렀다 한  
다. ㉞